

석유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과제

金 東 源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장〉

I. 머리말

흔히 석유는 국가경제의 혈액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생활 및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현대의 문명생활이 값싸고도 편리한 에너지의 대량소비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와 같이 부존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는 이를 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바 석유는 그 주종을 이루고 있어 '92년에만해도 석유수입에 120억불을 지불하여 전체 수입액의 14.7%를 차지함으로써 국제수지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가격이 물가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며, 무엇보다도 국내 주종에너지로서 국가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는 전략물자라는 점에서 식량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최근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 운용방식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석유정책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흥미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本稿에서는 현재까지의 석유정책의 흐름을 국내에서 석유가 처음 사용됐던 시기부터 일제치하 및 해방후 6.25동란을 거치면서 석유를 전량 美國에 의존했던 시기를 1단계로 하고, 1964년 이 땅에 정유공장으로서 처음으로 유공이 탄생한 후부터 '74년의 1차 석유파동기 까지를 2단계, 그후부터 2차 석유파동이 발발했던 '79년까지를 3단계, 그리고 '80년대의 저유가시대를 거치면서 석유산업이 발전되고 내실화 되어 왔던시기 즉 '91년의 걸프

사태까지를 4단계, 그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를 5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거의 추세를 반추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석유산업의 여명기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석유가 사용된 것은 1880년이다.

초기단계에서의 호기심에서 점차 그 편리함이 인정되면서 석유소비는 늘게 되었고 이에 따라 美國, 日本, 러시아로부터 석유수입이 활발히 이루어져 좁은 시장을 놓고 치열한 판매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우리나라가 日本에 합병된 후에는 美國의 Standard 및 Texas 석유회사와 英國의 Shell사가 국내 석유의 유통을 장악하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석유의 생산에 있어서는 1935년 日本이 元산에 6천B/D(30만톤/년) 규모의 정유공장을 세워 이를 8천B/D(40만톤/년)까지 확장하였으며, 1944년에 이 정유공장의 일부를 蔚山지방으로 이전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여 중단되었다. 이때 이전되었던 증류장치의 일부는 정부수립후 확장공사를 하였으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원유구입 곤란으로 가동되지 못한채 6.25동란으로 이땅의 석유산업은 1962년 油公의 설립시까지 더이상 발전되지 못하였다.

1945년의 해방이후 1948년 정부수립시까지 국내 석유는 美國의 원조물자의 한품목으로 공급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석유는 일제시대때의 유통망의 후신인 각 지역별 「석유배급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

급되었던 것이다.

그후 정부수립에 따라 원조의 형태도 해방직후의 PDA(Petroleum Distribution Agency) 원조에서 ECA(Economic Cooperation Agency) 원조로 바뀌면서 우리정부는 1949. 1. 4 미국정부와 『한·미석유협정』을 체결하여 ECA 원조에 의한 석유제품도입은 한국정부가 맡고, 이를 인수·저장, 판매하는 기능은 미국계 회사인 대한석유저장회사(KOSCO, Korea Oil Storage Co.)가 맡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협정에 따라 KOSCO 회사가 국내에 설립되었다. 그후 동년 10월 KOSCO는 저장 업무만 맡고 판매는 KOSCO에 합작투자했던 Standard, Caltex, Shell 3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변경되면서 외국 3사는 본격적으로 국내 석유판매시장에 판매망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34개 대리점과 1,200여개의 주유소 및 부관점을 개설토록 하였던 바 이때부터 오늘날의 석유유통구조의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1955년 5월 정부는 「한미석유협정」을 폐지하고 「한미석유운영협정」을 새로이 체결하여 KOSCO는 종전과 같이 저장업무만 담당토록하고 외국 3사가 전담하던 석유수입 및 판매권을 별도의 내·외국인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석유행정의 주도권을 한국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부터 석유는 전량 美國의 원조자금으로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석유도입을 위한 외환사정의 어려움도 컸던 실정이었으므로 정부는 석유의 유통에 관한한 철저한 통제배급정

《年度別 石油類 도입상황 (1955~1963)》

(단위 : 천배럴)

연도별/유종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합
1955	804	289	503	375	1	2,170
1956	1,373	375	551	1,262	6	3,567
1957	1,288	260	498	1,417	14	3,477
1958	1,302	261	755	1,893	7	4,218
1959	1,166	265	904	2,683	11	5,029
1960	1,257	301	1,012	2,465	11	5,046
1961	1,071	372	1,176	2,795	11	5,425
1962	707	391	1,938	3,638	11	6,685
1963	565	384	2,215	4,155	22	7,341

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정해진 구입처에서만 석유를 구입토록 하는 제도가 油公공장이 가동된 후까지도 지속되다가 湖南精油가 출현하여 물량이 다소 여유가 생겼던 1967년에야 비로소 자유판매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통제제도 실시에 따라 군용휘발유의 암거래등이 극심해 진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고, 이에 대응한 정부측의 통제도 한층 강화되어 1960년 10월에는 휘발유消化證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외국인조에만 의존했던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석유정책이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못했으나 1955년 5월의 「한미석유운용협정」 체결에 따라 비로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정책판단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입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정책목표라고 한다면 급증하는 석유소비에 대응하여 보다 많은 원조를 받아 오는 것과 국내에 도입된 석유를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이 될 것이다.

Ⅲ. 국내 석유산업의 성장기

1950년대의 황폐화된 경제터전을 딛고 일어나 조국근대화의 기치아래 경제부흥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5.16혁명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던 1962년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함께 당시 에너지수요의 90%를 차지했던 고체에너지를 값싸고 편리한 액체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으며, 특히 모든산

업이 유치단계였던 당시로서는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이 최우선 과제였던 바, 전량수입에 의존했던 석유를 국내에서 정제 생산할 수 있는 정유공장의 국내건설이 국내산업육성의 핵심과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62년 7월 대한석유공사(현 油公)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어 동년 10월 13일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정유회사가 탄생하였다. 이 회사는 당초 순수 민족자본으로 공장을 건설키로 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걸프사가 25%를 출자함과 동시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1964년 4월 蔚山에 35천B/D 규모의 공장 완공을 보게 되었다.

정부는 석유생산시설의 가동과 함께 국내 석유유통시장과 관련한 제반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석유운영규정」(상공부 고시 제652호, 1962. 11. 26)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에 이르는 석유산업의 큰 골격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은 전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넉넉지 못한 석유를 최대한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석유유통의 철저한 통제 및 석유가격의 고정가격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야심적인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던 바, 2차계획의 주목표가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석유화학, 제철, 기계, 섬유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육성 이었으므로 에너지 수요의 급증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66~67년간의 석탄파동 및 전력부족사태 발생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초를 종전의 『主炭從油』에서 『主油從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기조변화에 따라 국내 석유수요는 급격히 증가되었으므로 1964년 11월 윤활유 생산업체였던

〈국내 석유소비 추이 및 석유정제능력 확장('64~'72)〉

	1964	1966	1968	1970	1972
석유소비량(천배럴)	7,438	14,735	37,366	62,702	73,381
정제능력(천배럴)	35	40	120	220	400
-유 공	35	35	115	115	175
-호 유	-	-	-	100	160
-경 인	-	-	-	-	60
-극 동	-	5	5	5	5

樞東石油(주)에 대해 2.5천B/D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을 허가하였고, 1966년 4월 油公의 정제능력을 35천B/D에서 55천B/D로 확장하는 한편, 60천B/D 규모의 제2정유회사 건설을 추진하여 1966년 11월 湖南精油를 실수요자로 지정하였고, 이어 1968년 2월에는 京仁에너지개발(주)에 대해서도 50천B/D의 정유공장 건설을 허가하였다.

이처럼 60년대에 4개 정유회사가 집중적으로 설립·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유종탄 정책과 경제발전 가속화에 따른 수요급증으로 국내석유소비는 계속 큰 폭으로 증가(2차 5개년 기간중 38.4%) 하였으므로 각 정유회사는 원유정제능력을 대폭 확장하여 이에 대처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석유산업의 특징은 집중적인 정유공장의 신·증설이 이루어졌다는 것 외에, 주요 정유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에 의해 경영되었다는 점 일 것이다. 油公은 당초 25% 자본참여에 그쳤던 걸프사가 시설확장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면서 1970년부터 경영권을 인수해 갔고, 湖南精油소 설립시부터 *Caltex*측 수석부사장이 경영결정 투표권을 장악한다는 조건이었으며, 京仁에너지도 합작선인 *Union Oil*이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외국회사가 국내 정유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정유공장을 건설한 자본이 국내에서는 조달하기 어려워 불리한 조건이라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 컸으나, 한편으로는 정유산업 자체가 국내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공장의 건설, 원유의 확보, 회사의 경영, 판매등 주요 경영전략에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의 선진기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석유정책은 主油從炭의 기초하에 우선 국내 석유수요를 생산·공급한다는 방침으로 외국 기술 및 자본을 끌어들이어 정유공장을 건설토록 유도하고, 아울러 다수의 정유공장이 생겨남에 따라

유통측면에서도 종전까지의 완전통제 제도를 규정하던 「석유운영규정」을 1967년 10월 폐지하여 자유 판매제를 실시하였으며, 가격통제도 종전의 고정가격제에서 1969년부터* 최고판매가격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각 회사간의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라 할 것이다.

IV. 석유산업의 시련기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 발발로 야기되었던 제1차 석유파동은 전세계 석유소비국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중동전 진행에 따라 *OPEC* 국가는 석유무기화를 추진하여 10월 18일 사우디가 10% 원유 감산한데 이어 11월 15일 *OPEC* 국가들이 25%의 감산을 결정함으로써 전세계의 석유수급에 일대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원유가격도 1년사이에 4배이상 폭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가폭등 사태는 '74년 하반기부터 다시 안정세를 보이게 되었으나, 일단 인상된 원유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유가부담은 한창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던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유가격인상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게 된 산유국들의 경제사회개발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중동특수를 누리면서 1975년부터는 제2의 경제도약을 하게 되었다.

〈국내 원유도입액 추이(C&F 기준)〉

1972	1973	1974	1975
221	305	1,105	1,328백만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석유파동이 단기간내에 종료되었을 뿐만아니라 곧 이어 다가온 중동특수등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국내석유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정유시설도 '78년에 증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정부는 종전의 국내정유시설 확장위주의 석유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라 1974년 5월 「장기에너

〈원유가격 변동추이(A-L 기준)〉

월 일	1973			1974	1975	1976
	1.1	10.1	11.1	1.1	1.1	1.1
가 격(\$/B)	2,591	3,011	5,176	11,651	11,251	12,376

〈석유소비추이 및 국내정유능력 추이('74~'79)〉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석유소비(천배럴)	94,002	105,119	118,966	142,117	163,580	183,871
정유능력(천B/D)	440	-	-	-	580	-

지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던 바, 그 주요내용은 석유의존도를 감축하는 한편, 원유도입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선 다변화 및 국내 정유공장건설시 산유국의 직접투자 유도, 비축등 정부의 비상시 대응능력 확보등이었으며, 아울러 석유생산 및 유통전반에 걸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석유파동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게 되고 다시 국제원유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되자 상기 「장기에너지 종합대책」도 구체적인 시행이 따르지 못하게 되었다. 석유의존도는 '73년의 53.8%에서 '79년에는 62.8%로 늘어났고 中東지역 이외로의 도입선 변경 및 비축추진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다만 메이저가 아닌 산유국과의 정유공장 합작을 추진한 것은 이란측과 합작으로 1976년 1월 韓·이石油(주)가 설립되어 그 구체적인 결실을 보게 되었다. 특히 다행이었던 것은 1978년 1월 동력자원부가 부단위 정부조직으로 독립하여 발족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에너지정책을 다룰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다가올 제2차 석유파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V. 제2차 석유파동과 그후의 발전기

이란의 팔레비 왕정이 붕괴되면서 1978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제2차 석유파동은 또 다시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거의 마무리하고 가동을 시작하려던 우리의 산업에도 격심한

타격을 주었다. 가격이 오르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선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제때에 확보하는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거국적인 원유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물량의 확보 문제는 한고비를 넘기게 되었으나, 급등하는 원유가격으로 인한 물가 및 국제수지에의 압박은 제1차 파동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종전까지는 각 산유국의 원유가격이 그 품질에 따라 그에 알맞는 가격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제2차 파동시에는 각국이 각각 다른 원유가격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심지어는 비슷한 품질의 원유가격이 두배나 차이가 나기도 하였고 또한 종전까지의 OPEC 공식가격외에 현물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될것만 같던 2차파동도 1980년 9월의 이란, 이라크 전쟁에도 불구하고 1980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세를 보이더니 1982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서 OPEC의 영향력 감소와 함께 '80년대의 저유가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산유국의 원유판매방식도 1960년대까지는 메이저에게 생산량 및 가격수준 결정을 의존하던 것이 1970년대에는 독자적으로 공식가격 설정 및 생산량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파동을 계기로 일부물량은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판매하는 한편 일부물량은 SPOT 시장에 내놓으면서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스파트 시장의존율을

〈원유가격 변동추이('78~'90)〉

	1978말	1979말	1980말	1981말	1982말	1983말	1990말
공식가격							
(A-L:\$/B)	12.7038	24.00	32.00	34.00	34.00	29.00	-
(I-L:\$/B)	12.81	28.50	35.37	34.60	31.20	28.00	-
현물가격							
(A-L:\$/B)	12.91	29.19	36.01	34.25	31.85	28.77	20.70
(I-L:\$/B)	-	-	-	33.26	30.42	28.16	20.51

〈국내 석유소비추이 및 정제시설확장('79~'90)〉

	1979	1980	1981	1982	1983	1985	1990
석유소비(천배럴)	183,871	182,105	180,053	178,893	189,308	189,191	356,349
정유능력(천B/D)	580	640	790	790	790	790	840

높혀 나갔으나, 원유가격이 하락추세로 반전하면서 북해의 Brent 유전이 SPOT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 하던 1985년부터는 오히려 스파트시장 기능이 커지면서 할인판매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7개 주요유종의 Basket System에 의한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하는 고정가격제도로 바뀌더니, 1988년 들어서는 현물가격이 기준가격을 크게 하회하여 구매자들이 동 기준가격에 의한 구매를 회피하게 됨에 따라 '88년부터는 기간계약은 현물가격에 연동된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국내 석유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차 파동기간 중에는 급격한 가격인상의 영향으로 약간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곧이어 다가온 3저현상과 더불어 국내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급증하였으며, 특히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친 과소비현상까지 겹치면서 석유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소비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소비증가에 맞추어 국내 정유시설도 계속적으로 확장되었다.

'80년대 초반의 어려웠던 고비를 넘기면서 동력 자원부의 발족과 함께 비로소 우리나라의 석유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우선 중전까지의 석유 의존 중심에서 점차 에너지원을 다원화해 나가기로 하고 석유대체 연료로서 원자력, LNG, 유연탄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LNG는 '80년대 중반이후 에너지 소비의 고급화 및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원유의 확보 측면에서는 국내의 유전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유의 도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동의존도 감축을 위한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진력하는 한편, 국내 석유비축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이의 추진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유의 개발도입 및 단순도입 두가지의 도

입방법을 병행하고, 아울러 원유도입의 일시 중단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원유의 개발에 있어서는 '70년대부터 국내 대륙봉에 대한 탐사를 계속하여 왔으나, 1981. 1. 28 인도네시아의 서마두라 유전개발 진출을 효시로 '80년대에는 적극적인 해외유전개발에 착수하여 북에멘의 마리브광구에서 대 성공을 거두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비축도 1979. 3월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가 T-1, U-2 기지등이 건설되어 1990년말 현재로 3,978만2천배럴의 원유 및 제품이 비축 완료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0년대까지 원유의 단순도입 마저도 전량 메이저에 의존하던 것을 제2차 파동시부터는 우리나라가 직접 산유국과 교섭하여 원유를 도입하기 시작함으로써 원유의 단순도입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량과 역할이 증대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이 그후 1985년부터의 스파트 시장활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석유산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 석유산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외국 석유자본이 '80년대 초반에 대부분 한국에서 철수하게 됨으로서 명실공히 국내자본에 의한 석유산업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1980년 8월 유공의 경영권을 쥐고 있던 걸프의 철수, 1980년 6월 韓·이석유(주)의 이란측 지분 철수, 1983년 10월 京仁에너지의 Unoco 측 철수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석유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던 것이 바로 석유사업기금 제도이다. 당초 다원화된 원유가를 일원화시켜 국내유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석유사업기금은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운용됨으로써 국내 유가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80년대 중반의 저유가시대에

는 국내유가 인하대신 동 기금을 확대조성함으로써 막대한 조성액을 시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하여 정부는 대규모의 비축시설, 가스배관망등 에너지기반시설을 확장정비함은 물론 에너지절약, 석탄산업지원등 에너지부문의 각종 주요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석유수급구조에 있어서도 1980년대는 큰 변화의 시기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석유수요가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점차 경질화되어가는 한편 세계적인 환경문제 대두로 저유황연료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자,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통해 이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유사로 하여금 중질유분해시설, 탈황시설등을 설치토록 독려하여 1989년에는 極東精油의 중질유분해시설이 완공되는등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한편, 국내 정유공장의 규모가 대단위화되고 국내 석유산업에의 외국자본의 철수가 이루어지는등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3년이후 국내의 석유수급사정이 완화되자 정부는 석유산업의 자유화 및 경쟁유도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국내 유가관리 측면에서도 종전의 油公기준 원가계산에서 벗어나 국내 5개 정유회사의 평균개념을 도입하였으며('80. 11. 19), 일부 유종에 대해서는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83. 2. 6) 그후 자율화유종을 확대해 오고 있다. 또한 유동측면에서도 자유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1981. 3. 14일 주유소, 대리점의 정수제를 폐지하였다.

VI. '90년대의 석유정책과 과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석유정책은 한층 內實化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도 점차 넓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90. 8월부터 시작되었던 걸프 사태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전면 공격으로 단기간내에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에너지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다.

'90년대의 석유정책, 나아가서는 에너지정책 전반에 걸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종전까지의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측면도 중시하게 되는 균형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79년의 2차 석유

파동 직후부터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이에 따라 많은 정책노력이 기울어져 왔었지만 어디까지나 공급측면에서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공급능력의 일시적인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자체가 공급능력 확장보다 더 경제적이란다는 개념이 대두되게 됨으로써 에너지수요관리가 항구적·제도적인 정책과제로 부각되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공급측면에서도 원유의 확보 및 공급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입의 확대 뿐만 아니라 단순도입의 경우에도 그 경제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도 충분한 수준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원유의 확보 뿐만 아니라 국내정유시설도 석유수요자체가 '80년대 후반부터 질적변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시설보완 내지는 고도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의 경질유 수요증가 및 저공해유에 대한 공급확대 필요성에 따라 중질유 분해시설이 일부 갖추어지고 있고, 탈황시설 설치도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보완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석유산업 자체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내 석유산업에 있어서도 개방화 압력이 갈수록 커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의 자생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석유산업에 가해졌던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대신 민간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그동안 부분적이거나 석유산업의 자유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원유가 평균화제도, 일부유종의 가격자유화, 유가에 있어서 정유 5사 평균비용 반영, 정제시설 증설시 각종 인허가의 간소화 조치등은 이러한 정책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자유화시대에 있어서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로서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를위해 공정거래를 담보하기위한 규범을 설정하고 그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하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인 바, 우선 자유화의 전단계로서 자유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1차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추진중에 있다.

VII. 맺는말

이상으로 석유정책의 관거와 현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가지 시련을 겪으면서도 국내 석유산업과 우리의 석유정책은 발전되고 내실화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변화 못지 않게 큰 변화의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변화는 과거의 변화보다 그 파급효과가 훨씬 더 지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우리모두의 합심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 시사용어 ■

증 여 세

직계등讓渡재산에 부과...기업합병·증자따른 주주이익에도 적용

부모등 특수관계인의 사망을 전제로한 富의 세습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반해 증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상속행위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에도 일정비율의 세금(증여세)이 매겨진다.

국세청이 연령 소득상황등을 감안해 일정규모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증여세를 빠짐없이 받기 위한 것이다.

증여행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컨대 배우자끼리나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면서 가격을 시

가의 70%이하 또는 130%이상으로 결정했을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양도한 후 3년안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서 다시 양도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또 세금을 내지않을 목적으로 제3자명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기업의 합병 또는 증자 감자로 인한 주주들의 이익도 증여행위로 간주되며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도 증여로 보고 최저 15% 최고 6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 신 간 ■

경제발전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기초에너지인 석유-. 석유의 생성에서부터 수송·정제·유통·용도·환경보호등 석유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엮은 본격적인 석유만화.

만화 **석유이야기**

대한석유협회 홍보실